

## ■ 영국, 그린에너지 실용화 박차

○ 영국은 2010년까지 소요 전력의 10%를 그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10월 초에 발표함

- 현재의 그린에너지 유도정책을 전환해 전기 공급회사가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해 판매하도록 강제키로 함
  - 이같은 계획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시킬 예정임
  - 계획에 따르면 전기 공급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량을 2003년까지 5%, 2010년까지 10%로 확대하거나 기준량만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'재생의무증권(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)'을 구매해야 함
- 도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서 그린에너지 대상에서 제외함
  - 소각로에서는 더러운 에너지가 생산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 온 환경 NGOs는 이같은 조치를 전적으로 환영함

○ 전기 공급자는 그린에너지 사용의무기준을 준수하거나 어려울 경우, 적정 가격으로 준수의무를 구매할 수 있음

- 그린에너지를 10%로 확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구매 가격을 kWh 당 £0.03 (약 50원)로 책정함
  - 이렇게 거두어진 금액은 모두 그린에너지 사용의무를 준수한 전기 공급자들에게로 되돌아 감
-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kWh 당 £0.03 이하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연안역의 풍력발전에는 특별 지원금을 공여하기로 함
  - 풍력에너지 협회는 연안역 풍력발전에 정부에서 보조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환영하였으나 금액이 작아 실용성에 의문을 표하였으며 태양광제조업체는 가격이 낮아 향후 수년간 재생가능에너지원 산업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함

○ 고유가로 인한 경제침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약캠페인에서 벗어나 그린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됨

- 우리의 경우, 한, 두 가지의 유망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내수 시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